

고린도전서 2:6 – 2:16

6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4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15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 1 장 후반부터 2 장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조시킵니다 (2 장 6 절, 3 장 1 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혜는 믿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만 (6 절)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3 장 1 절)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 6 절과 8 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자들은 세상의 지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10 절, 11 절, 12 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성과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과 생각을 알려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세상의 지혜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자신이 가진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14 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 10-15 절에서 상반되는 두가지가 계속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과 하나님에게서 온 영,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 그리고 자연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대조에서 앞 부분에 나온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뒷부분은 믿는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 14 절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 하셨다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15 절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는 부분에서 '판단한다' 라는 단어는 분별하다, 가치를 조사해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5 절의 앞 부분과 뒷 부분은 따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데, 앞 부분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조사해서 (판단해서), 그 일이 영적인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16 절의 후반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15 절의 뒷 부분은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16 절의 앞 부분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 는 믿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라는 물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3, 4, 5, 6 장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